

제기된 질문

1.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은 자라는 말씀을 들을 때, 야기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의식이 없고 감각도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물을 만한 질문이지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무덤 속에서 썩고 있던 나사로가 어떻게 ‘나사로야 나오라’는 예수님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 진실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식이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육신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성경의 계시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1. 제기된 질문

성경은 이 땅에 살다 간 사람들이나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앞으로 태어나서 살 사람들이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 아담 안에서 죽었다고 단정적으로 선언합니다(고전 15:22).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좃으라”(마8:22)고 말씀하시고, 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요5:25)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요5:24)고 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죽은 자로 여기신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 있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사람이 살아 있지 않다면 결국 그것은 세상에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은 이런 사상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십니다.

단4:35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사40:17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 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같이, 빈 것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하여 말하면, 이 죄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요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역사적 연대도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시90:4 “주의 목전에는 천 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죄의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하여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죽었다고 하고 없는 것과 같다고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살아 있으며, 엄청난 문화를 이루며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이 현상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라는 문제가 제기 됩니다. 그리고 또 죽은 자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라는 문제도 제기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장 사망을 집행하지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며 집행 유예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아담이 죽은 죽음을 처리하셨기 때문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이미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지금 그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도 아담의 죄로 죽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영원한 죽음을 죽게 되는 것은 스스로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요 16:9)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제기는 아담 안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스스로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가 믿기 위하여서는 살아 있어야 하지요. 그러면 아담 안에서 죽은 자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살아 있는 그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산 그 삶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아담 안에서 죽었다는 것이 진짜 죽은 것이 아닌 것입니까? 이 질문은 집요합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하여 합당한 대답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성경에는 이에 대한 대답이 확실히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2. 성경이 말하는 두 생명

성경이 두 종류의 생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게 되었을 때 위의 질문의 대답은 분명해졌습니다. 그 두 종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과 육체의 생명입니다.

1). 하나님의 생명

엡4:18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고 계시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밝히 가르칩니다.

요1: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라는 것을 계시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요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아버지께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요5:26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수님 자신도 생명이시지만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신 까닭은,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기 때문에, 아담을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의 생명이나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동일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단언한 것입니다.

요일5:11,12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시조가 선악과를 먹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습니다.

고후11:3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케 한 것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태초에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은 그를 그리스도를 떠나게 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조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고전15:22).

그런데 이 죽은 자들이 살아 있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것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육체의 생명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2). 육체의 생명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육체의 생명이라고 번역된 곳이 네 곳 있습니다. 레위기에 두 번 민수기에 두 번 있다.

레17:11,14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14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

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민16:22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며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며 한 사람이 범죄 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민27:16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생명이라는 말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말의 대개념(對概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유 있는 질문이 제기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의 대개념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육체의 생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을 뜻하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였고 피를 흘리는 것은 생명을 빼앗는 것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피를 흘려 빼앗을 수 없습니다.

마10:28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이 세상에서 죽는 생명을 뜻하는 말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는 생명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뜻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육체의 생명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말의 대개념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과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인 것으로 육체라는 말들은 아주 많습니다.

육체의 생명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육체의 생명은 육체가 된 사람들을 잠시 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육체가 되었다는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창6:3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일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는 말씀을 개역 난하(欄下) 주(註)에 “육체이므로 범과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역(舊譯) 난하에는 “범과하므로 육체에 속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역의 뜻을 따르면 사람이 육체가 된 것은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 전체의 사상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원어에서 “**이**는”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가에 따라 이해가 다르게 됩니다. “**이**는”이라고 번역된 말이 “브샤감(בְּשָׂאֵם)”인데 이 단어가 “**이**는”이라는 뜻의 “감(גַּם)”에서 온 말이나, 아니면, “범죄하다”라는 말인 “샤가그(שָׂאֵם)”의 3인칭 복수 남성 부정사인 “샤감(שָׂאֵם)”이나 히브리어 번역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 구역이나 개역은 본문을 “감”이라는 뜻으로 번역하였고, “샤가그”의 뜻을 난하에 주

로 달아 놓은 것입니다.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지만, 성경 전체의 사상으로 보면 “샤가그”로 보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9절에는 창세기 6:3을 반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땅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이 없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3에는 하나님의 신 곧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므로 그 사람들이 육체가 된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가 된 것은 범죄의 결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체의 생명뿐인 사람을 육체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78:39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당연한 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생명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로마서 8:2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람을 주장할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는 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 육체의 생명은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말한 대로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회복을 위하여 육체의 생명을 일정 기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한 번 허락된 기회일 뿐 죽지 않는 생명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이 자기만 생각하시고 호흡을 거두시면 모든 혈육이 흠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욥34:14,15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 진대 15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히9:27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죽는 사람에 대하여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표현하고(약4:14), 풀과 같고(벧전1:24) 잠깐 자는 것과 같다고(시90:5) 표현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잠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을 은혜로 주신 기간인 것입니다. 그것을 거절하면 그는 정말 영원히 없어지고 맙니다. 즉 창조되지 않은 상태로 환원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에 대하여 신약성경에는 그 생명을 나타내는 상태가 구분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생명, 곧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그 삶은 반드시 조에(ζωή)를 사용하였습니다. 물론 육체의 생명도 그 생명 자체를 표현할 때 조에를 사용하였지만 세상의 삶을 표현할 때는 비오스(βίος)를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를 설명하면서 “이생의 염려”라고 할 때에 “이생”이 비오스입니다. 딤후 2:2에는 “평안한 생활”에서 “생활”이 비오스입니다. 딤후 2:4에는 “자기 생활에 얽매 이는 자가 하나도 없고”에서 “생활”이 비오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소유한 재산을 뜻하는 말로도 비오스가 사용되었습니다. 과부의 연보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생활비”라는 말이 비오스입니다. 눅 8:43에서는 12년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치료를 위하여 “가산을 다 허비했다”고 할 때, “가산”이 비오스입니다.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이 말이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눅 15:12,30에 탕자의 이야기 중에 “살림”이 비오스입니다. 요 일 3:17에는 “재물”, 2:16에는 “이생”이 모두 비오스입니다. 이런 용례를 볼 때에 “비오스”는 육체의 생명으

로 사는 것을 뜻하는 말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생명으로 사는 것은 “조에”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비오스”로 지냅니다. 그것을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조에”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서만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에 있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 생명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비오스적 방식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조에만이 우리를 주장하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썩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고전15:50). 그래서 이 육체의 생명은 본질상 사망이기 때문에 썩어짐의 종 노릇합니다. 성경은 이 육체의 생명에 대하여는 썩는다는 말로 자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썩는 양식을 구하고(요6:27), 썩을 면류관을 구하며(고전9:25), 모든 것들을 썩어질 것으로 바꿉니다(롬1:23). 육체의 생명은 결국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없어질 것이 없어져 가는 기간 동안, 영적으로 말하면 죽었으나 아직도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도록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번 다 육체의 생명만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왔다고 하고 중생 했다고 하며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 곧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기 위하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이 되어 사망을 맞보셨습니다.

히2:9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맞보려 하심**이라.”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곧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원래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그를 붙잡아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승리한 것입니다.

행2:31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32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고전15:54-58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55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

이 엄청난 부활의 생명은 이렇게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는 동안 반드시 이 생명을 소유하고 이 생명 안에 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